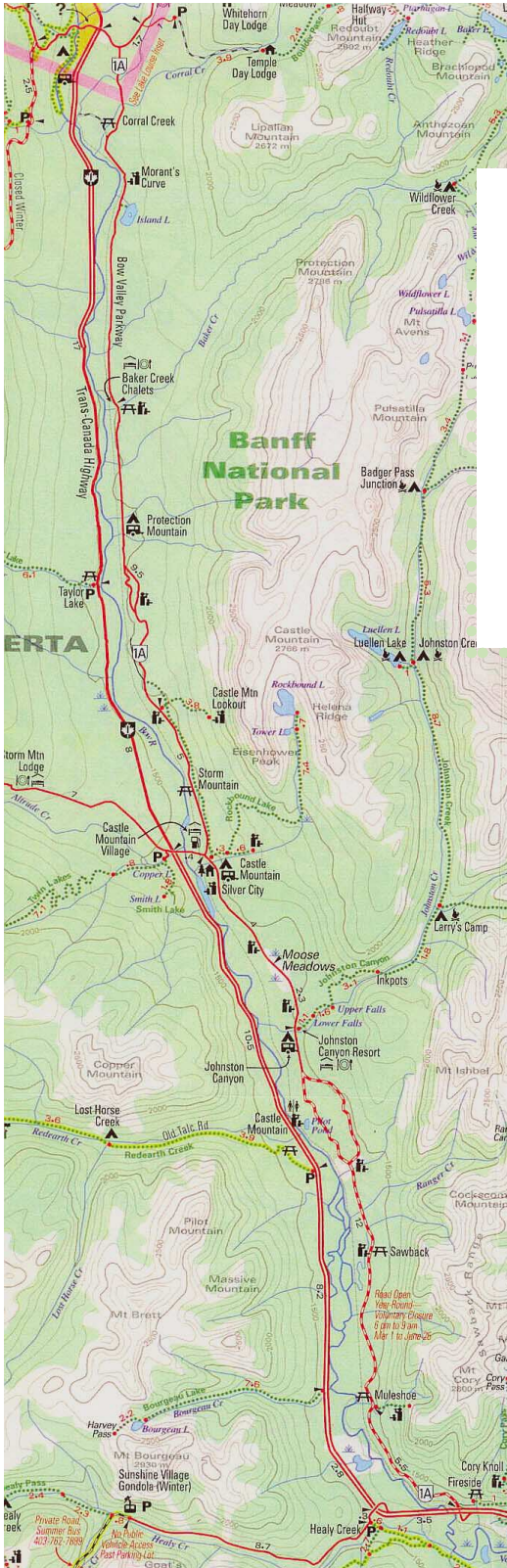


굽이치는 강물따라 이어지는 길



박형우

오늘은 Banff에서 Lake Louise까지 달리는 1번 고속도로와 나란히 놓여있는 일명 Bow Valley Parkway(BVP)라 불리는 길을 달려보자. 이 구간의 총 길이는 60Km이다.

이 길은 캐나다 트랜스 하이웨이가 개통되기 오래 전부터 닦여져 있던 길로 경관이 뛰어나고 Banff 전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볼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흥미로운 길이다. 속도 제한(60Km)이 있고 전 구간에 걸쳐 십여 군데의 Interpretive Exhibits Board(도로 표지판에서 “e”자가 있는곳에서 정차하여 정보를 얻을수 있다)를 통하여 Banff의 자연 생태계와 역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전시가 되어있어 여유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Banff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Bow Valley Parkway(BVP)는 Calgary에서 Lake Louise 쪽으로 가다가 두번째 Banff 진입로를 지나서 5Km를 더 달리면 우측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BVP가 끝날 때 까지 왼쪽으로 기차길과 보강을 두고 계속 달리게 된다. 기차길은 거의 강의 레벨과 같이 놓여 달리고 BVP는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며 굽이친다.

BVP 초입에서 Johnston Canyon까지의 지역은Montane ecoregion(저산대 생태계)이라 불리우며 밴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거주하는데 봄철에 다른 모든 지역이 눈에 덮여있을 때 이 지역의 눈이 제일 먼저 녹고 가장 먼저 새싹이 돋으며 또한 강물과 가까이 있기에 긴 겨울을 지난 야생 동물들이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특별히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가장 예민한 곳으로 지정되어있다.

BVP로 접어들어 3Km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첫번째 포인트가 Backswamp라는 늪지대로 보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인데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Interpretive Board에는 보강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조성된 늪지에서 Osprey(물수리)나 Blue Heron(청 왜가리) 등의 야생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Backswamp를 벗어나자마자 산불 흔적이 심하게 남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1993년 인공적으로 산불을 내어 오래된 lodge pole pine 숲을 젊고 건강한 숲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

다음에 만나게 되는 곳이 Muleshoe로 보강의 흐름이 바뀌어 말굽 모양의 호수가 보강과 분리된 곳으로 Aspen 숲과 어우러진 Day use area가 있어 가족들과 피크닉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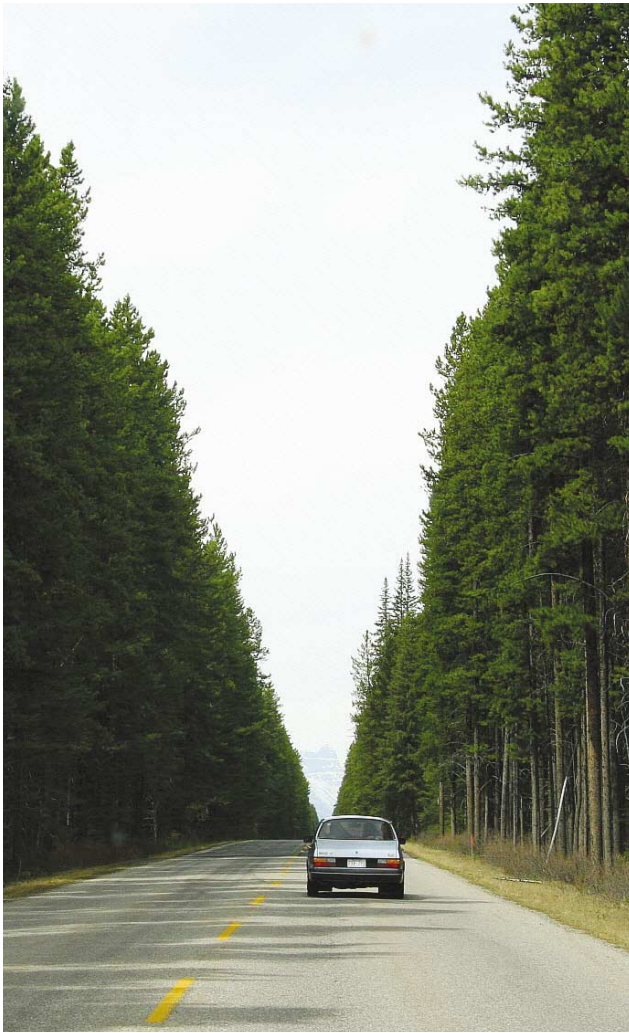
계속 이어지는 7~8Km 구간은 야생동물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으로 엘크나 사슴, 산양 등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간간히 회색곰도 출몰한다고 한다. 도로는 Hillsdale Meadows라는 곳으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Elk의 주요 서식처인 Aspen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9월말에서 10월초에는 황금색 물결로 채워지게 된다.

Hillsdale Meadows를 벗어나면서 오르내리는 산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수천 년 전 Bow Valley로 흘러 내리던 빙하가 운반하던 토사가 정체되면서 생긴 지형으로 들어서는데 여기서 길은 일방통행으로 나뉘어져 3Km정도를 달리게 된다.

다음에 만날 주요 포인트가 Johnston Canyon으로 BVP시작점에서 17.5Km 지점에 있으며 BVP구간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이 트레일은 깊은 계곡을 따라 가는데 3.2Km를 걷다보면 폭포를 7개나 만나게 된다. 트레일은 약 30여m에 이르는 아슬아슬한 절벽 사이로 이어지며 어느 지점에서든 계곡의 폭이 6m 정도로 좁아지기도 한다. 이곳에서 2.7Km를 더 올라가면 Inkpots이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비취색의 물빛이 매우 아름답다.



다시 BVP로 돌아와 다음에 정차할 포인트는 Moose Meadows이다. 이곳에서 Castle Mountains의 장엄한 위용이 드러나는데 Trans Canada Highway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서 산세를 즐길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쪽의 정상이 Eisenhower Tower로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한다. Moose Meadows를 지나서 Castle Junction 부근에 Silver City라고 불리우던 버려



진 마을이 있었는데 1881년, 금과 은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는 루머에 따라 많은 수의 광산업자들이 몰려 최대 3000명에 이르는 마을이 되었다가 불과 2년만에 Ghost town으로 버려졌다고 한다. 지금은 옛 마을의 흔적조차 찾기가 어렵다.

Castle Mountain Junction좌측에서 Trans Canada Highway와 Kootenay National Park으로 연결되는 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Castle Mtn. Village라는 통나무집 리조트가 있다. 약 5Km정도 지나서 Castle Lookout Trail이 나오는데 길이는 3.5Km에 불과하지만 꽤나 가파르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이 트레일을 오르며 고생한 생각을 말끔히 씻어내게 한다.

멀지 않은 곳에 도로 우측으로 꽃다발이 놓여진 조그만 동상과 비석이 눈에 띈다. 일차대전 당시, 캐나다의

적국이던 Austro-Hungary 출신들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이에 따르지 않은 8000여 명이 감금되었고 이들 대다수가 Austro-Hungary 국적으로 하층생활을 했던 Ukrainian이었다. 이 곳이 바로 8000여 명 중 일부를 강제로 수용시켜 노역을 하게 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계속 달리다 보면 Baker Creek Chalets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담한 리조트는 록키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 중의 하나인 Mount Temple(3542m)의 우뚝 솟은 모습을 배경으로 위치해 있다. Baker Creek으로부터 길은 다시 숲으로 접어들고 하늘이 V자 모양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 계속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

Morant's Curve에 도착하면 바로 이곳이 BVP의 마지막 볼거리이자 열차사진 촬영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록키를 찍은 사진에 Lake Louise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으로 맑은 날, 운이 좋아 열차를 만나게 되어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다면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겠다.

이 BVP가 끝나는 곳에서 우측으로는 Lake Louise ski hill로 가게 되고 좌측으로는 Lake Louise Village가 이어지게 된다.

BVP는 Lake Louise나 Jasper, Yoho 등을 목적지로 하고 지나갈 때 잠깐 들리는 것보다는 바로 이 길만을 목적지로 하여 여유있게 드라이브 하기를 권한다. 매년 3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Johnston Canyon 부터 동쪽 진입로까지 야생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이 제한된다.

